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7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4일 (음력 2월 19일) 수요일

강기정 · 민형배 · 최영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단일 후보와 2인 공동위원장 체제 가동”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예비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가 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내 경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강기정·민형배·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3인이 단일 후보와 2인 공동위원장 체제, '시민공동정부 전환위원회' 가동을 골자로 한 통합캠프 로드맵을 제시

했다. 강기정·민형배·최영호 후보는 3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자 단일화 후 구성될 시민공동정부 로드맵과 방향성을 발표했다.

시민공동정부 전환위원회 즉시 가동

단일 후보 오늘 오전 10시 발표 예정

세 후보는 특히 4일 단일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시민공동정부 전환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단일 후보와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분권, 혁신, 민주 성장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3가지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공동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3가지 방향은 ▲시민 시정 ▲협치 시정 ▲소통 시정으로 잡았다.

시민 시정은 시민결정 행정시스템 도입과 온라인 시민의회, 시민청원 창구, 협치 시정은 정당·시민 인사추천제, 정치페스티벌, 시장·국회의원·구청장·지방의원·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광주 협치 라운드테이블, 의정지원센터 운영을 담고 있다. 소통시정은 '광주형 목요일' 상시 운영, 지역 현안 공론화위원회 운영, 매년 연초 광주비전대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한다.

세 후보는 "광주시민의 뜻을 시장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 후보의 정책 중 공통된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시민공동정부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모두 포괄해 실천할 계획"이라며 "통합 선거사무실, 통합 실무정책팀 구성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후보 진영은 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후 8시까지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각각 1000명씩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며, 시민사회단체 숙의배심원 23명의 최종 의견과 세 후보의 입장, 여론조사 결과 등을 더해 4일 오전 10시 단일후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3자 단일 후보 결정상황을 지켜본 뒤 5일 경선 예비후보(컷오프 통과자) 명단과 경선 방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올드보이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겸 남경희 후보로 김태호 전 총리 등을 영두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노회찬정의 당원대표는 '국민들 시각에서 보자면 재계가 바뀐다'며 유호기간이 지난 상품을 내놓는 게 아닌 가이렇게 보인다 고 2일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나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듯하고 참신한 인물들을 이번 지방선거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조인호 · 자료사진 = 뉴시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 김영록 · 신정훈 · 장만채 최종 결정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3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지사 경선 후보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장만채 전 전남도육감으로 최종 결정됐다. 광주시장 경선 후보는 후보자들 간에 단일화 결정이 진행되는데로 경선후보자

와 경선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고 여론조사 50%, 관리당원 ARS 투표 50%를 반영해 결정한다.

현재 다른 당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민주당 경선 승리가 본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지사 경선 후보 면면의 경력과 출신 지역이 다르고 지지기반 등도 후보군들간 뚜렷해 누가 도지사가 되든 새로운 전남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통관료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1977년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남도 기획담당관실과 내부부 총무과를 거쳐 강진군수, 완도군수, 목포시 부시

장,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무소속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해 18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곧바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19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대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열풍에 밀려 낙선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신정훈 청와대 전 비서관은 대학 운동권 출신으로 농민운동가, 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거쳤다. 광주 인성고를 나와 고려대 재학시절인 1985년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해 구속돼 2년3개월의 옥살이를 하는 등 대표적인 386세대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다. 복역을 마치고 고향인 나주로 낙향한

그는 주도적으로 '수세(水稅) 거부운동'을 펼쳐 전국적으로 확대, 결국 정부로부터 수세 폐지를 이끌어냈다. 농민회 활동을 하다 전남도위원과 나주시장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돌풍에 무너졌고 지난해 문재인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최근 사표를 던지고 전남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교육행정가로서 재선 도교육감을 대과 없이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일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 화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1985년부터 순천대학교 재료공학과 조교수를 시작으로 자연과학대학 학장 등을 두루 거친 뒤 2006년 제5대 순천대학교 총장에 올랐다.

지난 2010년 첫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총장직을 사퇴한 그는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영환 기자

2018 원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2018. 5. 4(금) ~ 5. 7(월)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청해진유적지 일원

공식행사 4.14(토) 14:00~

느림의 타종식
오색가래떡 나눔잔치
나비아 청산가자

©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힐링토크(11시~12시)
식전공연 - 여행스케치 외(1시~2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2018

2018. 4. 7(토) ~ 5.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일원

- 5.4(금) 완도군민 화합 한마당, 군민화합 가왕 선발전
- 5.5(토) 218m 해조류김밥 만들기, MBC TV 축하쇼
- 5.6(일) 김제동 · 이승환의 라이브 Show
- 5.7(월) 전남 도립국악단 특별 초청공연